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6월 17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스마트도시 담 당 관	담 당 자	• 스마트GIS팀장 이재영 ☎440-8936 • 담 당 자 조기웅 ☎440-8937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GS건설, GeoBIM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안전한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데이터 동행 시작
 - 시의 디지털트윈과 건설현장 관리기술을 접목한 '민관 협력 모델 구현' -
 - 도시 운영 데이터 구축 비용 절감, 안전 및 생산성 향상 등 기대 -

인천시와 GS건설이 손잡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이터 동행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7일 오후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 GeoBIM(Geospati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GIS와 BIM의 결합을 말하며, GIS와 BIM은 도시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작업을 가속화 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킴
- 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 및 인프라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정보를 3D 모델 기반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날 인천시와 GS건설은 인천시의 GIS 노하우와 GS건설의 현장 관리 디지털 기술인 BIM 기술협업을 통해 시의 공간정보와 민간기업의 건물·인프라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운영을 위해 공동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천시와 GS건설은 시의 GIS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지오빔(Geo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구간 등 인천지역 공사현장 9곳을 지정해 지역정보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천 지역의 건물과 관련 인프라는 수년간의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의 생애주기를 거치며, 공유된 정보를 통해 도시 환경 및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가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이 동일한 상황 인식을 갖고 소통하며 건설현장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시와 GS건설은 이같은 데이터 동행을 통해 민관의 데이터가 스마트한 도시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도록 공유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오늘 인천시와 GS건설의 데이터 동행은 시의 공간정보와 기업의 건설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

드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정보와 현장정보가 상호작용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우무현 사장은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도시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사회적 비용절감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리정보와 3차원 BIM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사례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시-GS건설 업무협약서 전문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붙임

인천시-GS건설 업무협약서 전문

“ 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 업 무 협 약 서

협약 당사자

인천광역시	GS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이하 “인천시”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이하 “GS건설”이라 한다)
(상기 둘을 합하여 “당사자”라고 한다)	

인천시와 GS건설은 GeoBIM 등 건설 현장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구조체계 구현을 통해 도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회적비용 절감과 스마트도시 건설 등 상호 관심분야에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당사자는 GS건설이 인천시 관내 공사 시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필요 또는 생산되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GeoBIM과 디지털트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민-관의 현장데이터 선순환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협업모델로 만들어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스마트 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2조 (협업분야)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 가. Geo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나. 인천시 GIS플랫폼, 디지털트윈 플레이그라운드 역할 확대
- 다. 건설 공사의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 단계의 데이터 공유
- 라. GeoBIM 및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체계 산업전반으로 확산
- 마. 포괄적 업무 협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의 교류

제3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당사자의 역할)

1. 인천시 : GS건설이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인천시 GIS 플랫폼을 통해 GS건설과 공유, GeoBIM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트윈 행정 구현
2. GS건설 : 인천시 관내 건설공사 시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GeoBIM 데이터를 인천시와 공유, 인천시가 GIS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 단계에 활용

단, 각 당사자의 보안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및 제3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는 공유대상 데이터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데이터를 제공하였다하여 그 데이터의 소유권 및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 지식재산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는 상대방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배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한다.

제6조 (보안의 의무) 본 업무협약서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은 대외에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상호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처를 협의하여 제공한다.

제7조 (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17일

인천광역시

GS건설(주)

시장 박남춘_____

사장 우무현_____